



충남연구원 마을만들기지원시스템연구회
ChungNam Institute

제7회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in 청양

“농촌 관광,

도농교류 체험의 빛과 그림자”

일시 2016. 9. 23(금) 14시 ~ 19시

장소 칠갑산 알프스마을 / 청양군 정산면 천장호길 223-35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 프로그램 -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3:00 ~14:00	· 마을 견학(희망자)	권장사항
~14:00	· 참가자 등록 및 안내	
14:00 ~14:30	· 연구회 취지 및 오늘의 주제 소개,, · 참가자 자기 소개 (전원)	
14:30 ~14:50	<1부> 청양군의 농촌관광과 도농교류센터 · “청양군 체험휴양마을협의회의 활동 상황” (장광석 회장) · “청양군 도농교류센터의 향후 방향” (구자인 연구위원)	각 10분 (질의응답 포함)
14:50 ~15:00	· 휴식 및 교류 (10분)	명함 교환
15:00 ~16:00 (60분)	<2부> 주제 발표 : 농촌체험관광과 농촌 마을 · “농촌관광의 가능성과 어려움 : 알프스마을의 경험” - 황준환 위원장(알프스마을) · “농촌관광으로 농민은 어떻게 변하는가? : 사무장의 경험” - 권봉관 박사(협동조합 지역문화연구공동체 모정)	각 30분 (질의응답 포함)
16:00 ~16:10	· 휴식 및 교류 (10분)	
16:10 ~17:40 (90분)	<3부> 지정토론 및 종합 토론 · 지정토론(3인_예정 포함) : 각 10분 - 박경철 책임연구원(충남연구원) - 정석호 초빙책임연구원(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임광빈 회장(충남체험휴양마을협의회) ※쟁점 : 농촌관광이 마을에 던진 빛과 그림자 (1) 농촌관광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가? (2) 마을 발전에 농촌관광은 필수적인가? (3) 농민은 농촌관광 사업에 적응할 수 있는가? (4) 농촌관광으로 마을 갈등은 필연적인가?	사회 : 구자인
17:40 ~18:00	· 광고 및 정리 : 차기 회의 일정 등 홍보	
18:00 ~19:00	· 저녁식사 및 교류회	

- 목 차 -

마을만들기지원시스템연구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소 개 1

오늘의 주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체험의 빛과 그림자
(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3

청양군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청양군도농교류센터) 소개
(장광석, 청양군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회장) 9

청양군 도농교류센터의 향후 방향
(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17

농촌 활성화방안으로서 농촌관광의 실행과 그 현재적 양태
(권봉관, (협)지역문화연구공동체 모정) 23

충남연구원 마을만들기지원시스템연구회

제7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청양)

- “농촌관광, 도농교류 체험의 빛과 그림자”-

“마을은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언제나 외부로 열린 세계였다. ... 마을만들기는 마을에서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다음 세대까지 배려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근원적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하지만 마을은 완전히 개방된 세계가 아니다 마을마다 역사적 전통과 고유한 문화가 있고 이에 따른 질서가 작동한다. 이 점은 마을의 다양성으로 드러나며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래서 외부인이 마을을 출입할 때에는 나름의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농촌 사회의 마을은 더욱 그러하다.(2015 전국 마을선언 초안, 제6절)

2000년에 시행된 농업·농촌기본법은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농외소득 증대, 이를 위한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에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부)과 전통테마마을(농촌진흥청) 사업이 도입되고, 그 이후로 농촌 마을에서 농촌관광과 도농교류 체험을 중심으로 한 마을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도 단위로 사단법인이 설립되고, 시군으로도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교류사업을 통해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알리고, 체험휴양기능을 활용하여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며, 도시민들이 농촌을 더 자주 찾게 만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한편으로 생산자 농민들이 도시민의 ‘종노릇’ 하게 만들고, 시설 운영이나 소득분배를 둘러싸고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초래하며, 마을만들기의 영역을 소득 중심으로 축소하였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양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7회 대화마당의 주제는 “농촌관광, 도농교류 체험의 빛과 그림자”라고 다소 도발적으로 정했습니다. 농촌마을에서 이루어진 약 15년의 농촌관광 역사를 회고하면서 가능성과 한계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화마당은 전국에서 체험휴양마을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고 평가받는 청양군 알프스마을에서 개최됩니다. 청양군 도농교류센터의 경험을 듣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 동향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좋은 학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일 시 : 2016. 9. 23(금) 14:00 ~ 19:00

○ 장 소 : 청양군 알프스마을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천장호길 223-35(정산면 천장리 164-1번지)

○ 참석대상 : 열정이 있고 공부하려는 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

○ 참가비 : 무료

※ [참고] 월별 운영계획(예시)

일시	회차	주요 내용	비고
3.25	1차	· 홍성군 : 지역협력네트워크 + 홍동면 마을확력소 · 쟁점 : 마을만들기의 민간 네트워크(희망과 애로사항)	
4.22	2차	· 아산시 : 공동체지원센터 · 쟁점 :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직영 및 민간 위탁 비교)	4.21~22 3농혁신대학(아산)
5.20	3차	· 논산시 : 희망마을지원센터 · 쟁점 : 행정 총괄조정부서와 업무협력체계(필요성과 현실)	5월중 조직개편 완료
6.24	4차	· 예산군 : 행복마을지원센터 · 쟁점 : 마을 협의체 구성방향과 역할(당사자조직의 과제)	5월중 마을협의회 구성 워크숍 개최 예정
7.22 ~23	5차	· 보령시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은고개마을 · 쟁점 : 마을과 6차산업화 (마을의 경제적 자립)	3월 마을센터 운영 시작, 7월중 마을대학 시작
8.26	6차	· 천안시 : 공동체네트워크 함께이룸 · 쟁점 : 도농통합도시의 마을만들기(도시와 농촌의 만남)	4월중 조례 제정, 7월중 민간위탁 결정
9.23	7차	· 청양군 : 도농교류센터, 알프스마을 · 쟁점 : 농촌 마을의 도농교류와 농촌체험(빛과 그림자)	8-9월 마을대학 운영중
10.21	8차	· 서천군 : 마을만들기지원센터(직영), 봄의마을 · 쟁점 : 귀농귀촌과 전원마을(성공과 실패의 경험)	10월중 마을센터(직영) 개소 예정
11.25	9차	· 태안군 : 태안군체험휴양마을협의회, 만대마을 · 쟁점 : 농어촌자원의 활용방안(농촌경관과 생태)	11.3-4 마을만들기 충남대회(아산)
12.30	종합	· 종합토론 : 충남 마을만들기의 현재와 과제 · 쟁점 : 마을만들기의 지원 시스템(지역별 과제 점검)	충남도청 혹은 충남연구원

※ 월별 개최 시군과 쟁점, 협력단체 등은 지역 협의에 따라 바뀔 수 있음

제7회 마을만들기 대화마당과 오늘의 주제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시스템연구회 -

“농촌관광, 도농교류 체험의 빛과 그림자”

2016. 9. 23(금)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시스템연구회

1

1. 제안 배경과 목적 _ “문제는 쉽게 보이지만...”

마을만들기... “주민 주도, 상향식”

원칙

“마을 주민 의식이 문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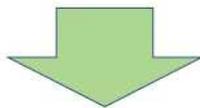
마을 탓

“행정 사업이 마을을 망친다”

행정 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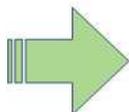
초고령화... “농촌 마을은 안돼...”

자포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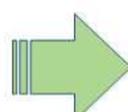


농촌 마을의 객관적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정책 문제

정책의 실패 = 연구자, 공무원의 책임



근본 원인 분석



외부 지원 시스템 구축

반성이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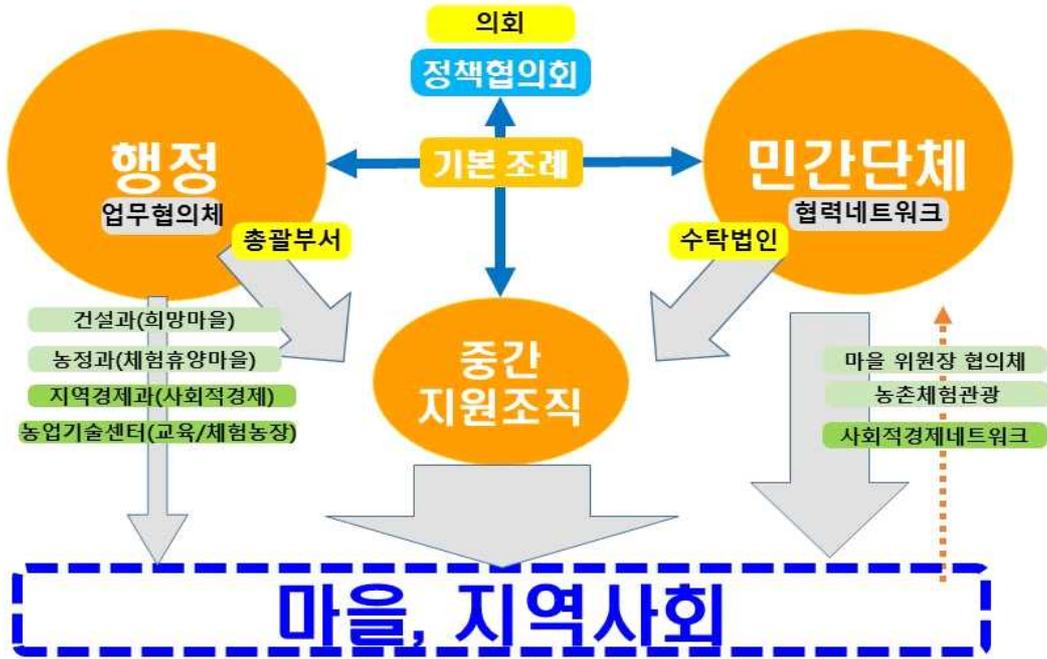
시군 순회, 공동학습

지속가능성 확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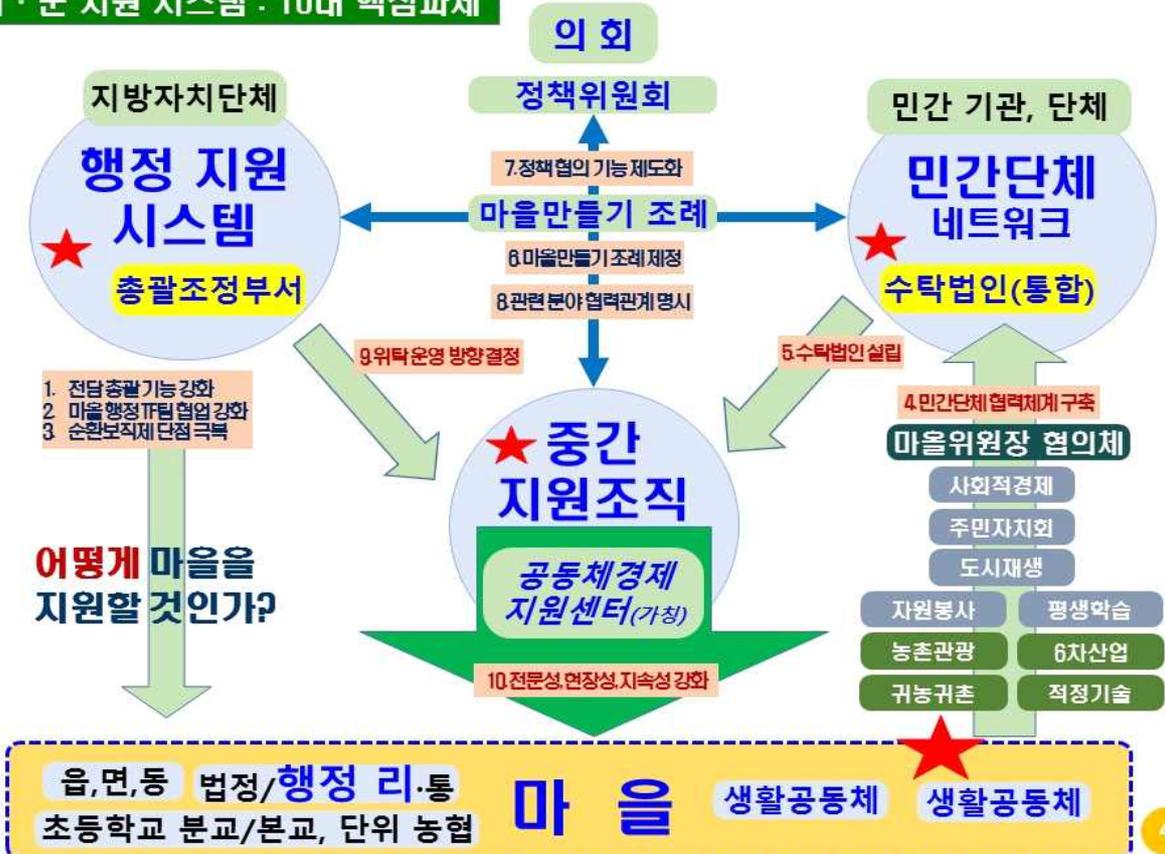
2. 기본 관점_ 마을만들기의 자치단체 지원 시스템 구축

[신]내발적발전론, 사회적경제론, 거버넌스론



3

시·군 지원 시스템 : 10대 핵심과제



4

5. 월별 운영계획(안) _ 시군 협력을 통한 공동 개최

일시	회차	지역과 주관협력 기관, 주제	비고
3.25	1차	· 홍성군 : 지역협력네트워크, 마을활력소 쟁점: 마을만들기의 민간 네트워크 (희망과 애로사항)	
4.22	2차	· 아산시 : 공동체지원센터 쟁점: 중간지원조직 의 설치와 운영(직영/위탁 비교 등)	421~223농혁신대학(아산)
5.20	3차	· 논산시 : 희망마을지원센터 쟁점: 행정 총괄조정부서 와 업무협력체계(필요성과 현실)	520(금) 전국 마을론 컨퍼런스(광주 광산구) 527(금) 내포숲길과 마을활성화(예산군 덕산)
6.24	4차	· 예산군 : 행복마을지원센터 쟁점: 마을 협의체 구성방향과 역할(당사자조직의 과제)	6.15~16 행복마을협의회(준)구성
7.22	5차	· 보령시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은고개마을(음현리) 쟁점: 마을과 6차산업화 (마을의 경제적 자립)	3월 마을센터 운영 시작, 7월중 마을대학 시작
8.26	6차	· 천안시 : (사)공동체네트워크 함께이룸 쟁점: 도농통합시 의 마을만들기(도시와 농촌 마을의 협력)	4월중 조례 제정 8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오픈
9.23	7차	· 청양군 : 도농교류센터(체험휴양마을협의회) 쟁점: 농촌 마을의 도농교류농촌체험 (가능성과 비중)	도농교류센터 운영중
10.28	8차	· 서천군 : 마을만들기지원센터(직영) 쟁점: 귀농귀촌과 전원마을 (성공과 실패의 경험)	11월중 직영 센터 오픈
11.25	9차	· 태안군 : 태안반도희망포럼 쟁점: 농어촌자원의 활용방안(마을의 친환경적 개발)	11.3~4, 마을만들기 충남대회(아산)
12.30	종합	· 종합토론 : 충남 마을만들기의 현재와 과제 쟁점: 마을만들기의 지원 시스템 (지역별 과제 종합 점검)	충남도청(혹은 충남연구원)

6. 오늘의 주제 : "농촌관광, 도농교류 체험의 빛과 그림자"

1) 논의 배경 : 마을은 완전히 개방된 세계가 아니다.

"마을마다 역사적 전통과 고유한 문화가 있고 이에 따른 질서가 작동한다. ... 그래서 외부인이 마을을 출입할 때에는 나름의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2) 문제 의식(쟁점) : 농촌체험관광이 마을에 던진 빛과 그림자

- (1) 농촌관광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
- (2) 농촌 마을 발전에 농촌체험관광은 필수적인가? 다른 경로는 없는가?
- (3) 농촌 마을 주민은 농촌관광 사업에 적응할 수 있는가? 특히 노인은?
- (4) 농촌관광으로 마을 갈등은 필연적인가? 예방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3) 지명토론 : 1인당 1회 5분 이내 * 2회

- (1) 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질의, 응답)
- (2) 다양한 연구, 활동 경험에서의 새로운 제안 등

풀뿌리 주민자치운동(마을만들기)의 역사 : 1992년 테제

한 뿌리에서 나온 다양한 풀뿌리 활동



농촌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영역 : “살기 좋은 농촌 마을 만들기”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추진하는 모든 활동



농촌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사례 : 마을 주민이 주도하는 성공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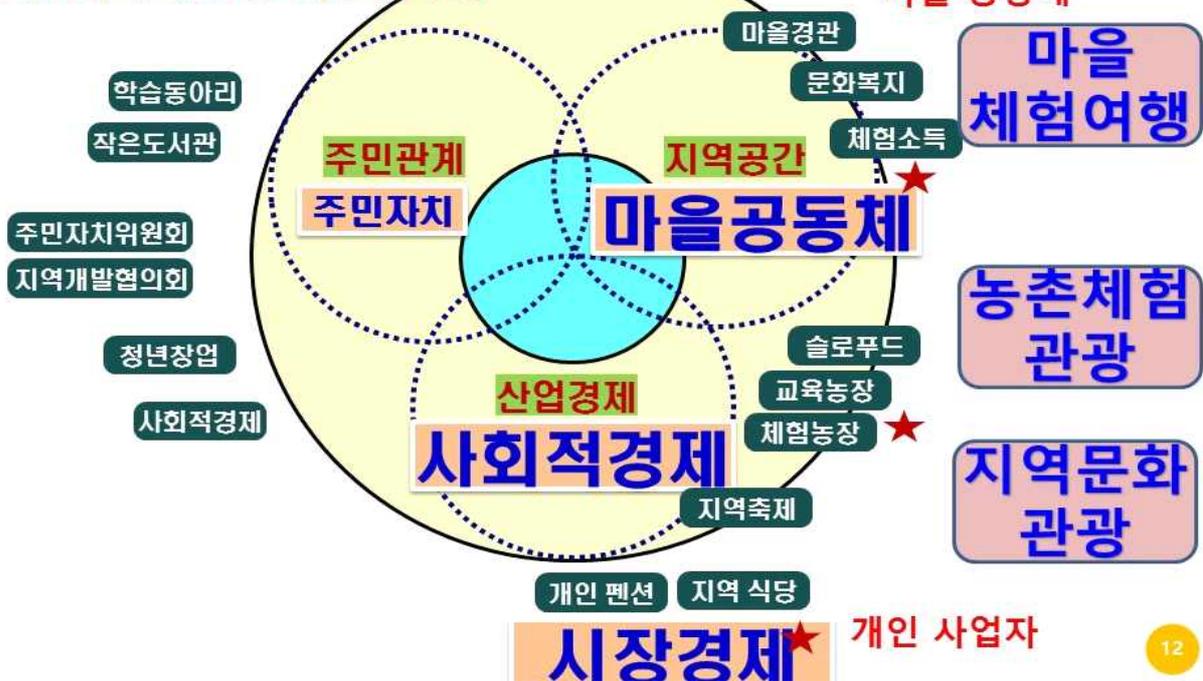


농업이 살아 있는 친환경마을
 농촌관광 중심의 체험휴양마을
 농가공이 발달한 6차산업마을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복지마을
 농촌 교육이 살아있는 마을

마을만들기와 농촌관광 (개념도)

: 차이의 존중, 연계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교육, 학습)





청양군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청양군도농교류센터 소개

목차



센터 연혁



2014년 활동



2015년 활동



2016년 활동



비전 및 목표

연혁

· 2008년~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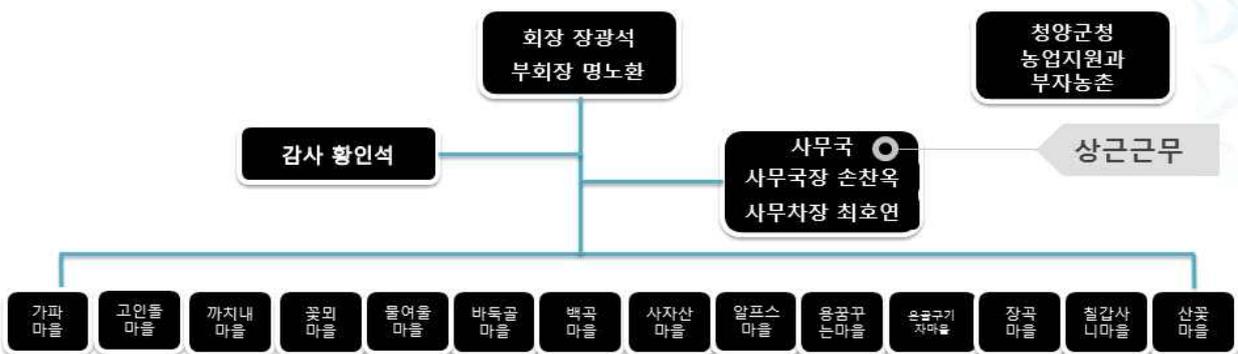
- 2008년 청양군 녹색농촌체험마을 협의회 발족
- 2010년 청양군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명칭 변경
- 2011년 청양군 농촌체험마을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컨설팅 사업
- 2012년 청양군 도농교류센터 설립 추진
- 2013년 6월 청양군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사업 실시

· 2014년

- 4월 청양군도농교류센터 개소



소개 조직도



2016. 9월 현재

- 현재 14개 마을 청양군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회원으로 활동 중
- 14개 마을 중 10개 마을 사무장 지원
- 도농교류센터 설립 당시 출자금, 임대보증금으로 마을당 1백만원씩 출자
- 마을회비의 경우 월 1만원이었으나, 이후 상근직원의 급여/센터 운영비 등으로 월 10만원으로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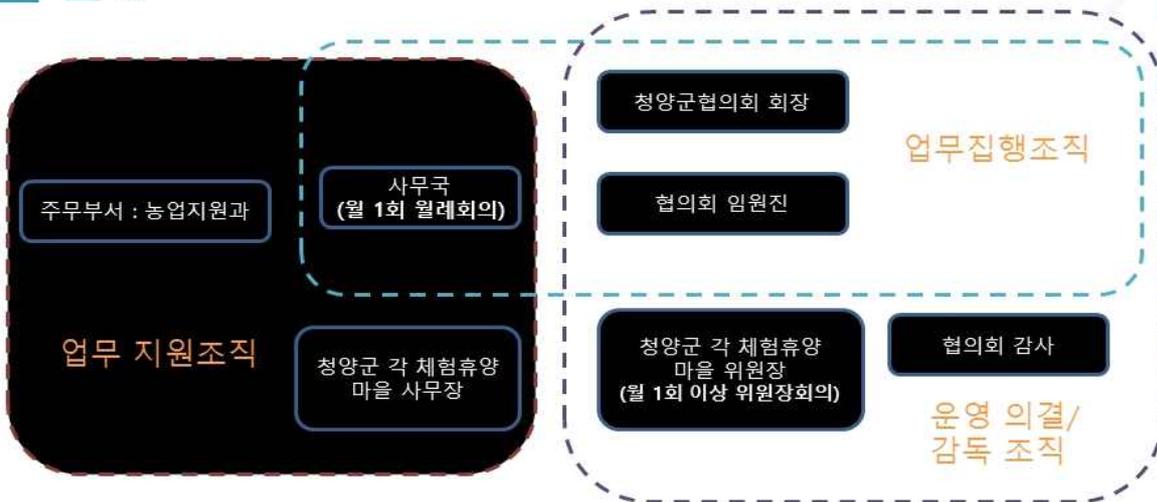


소개역할 및



▲ 청양군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브랜드

운영



청양군청: 사무국 상근직원(사무국장, 사무장) 인건비 지원/ 센터운영비(공과금, 사무기기)

청양군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사무국 상근직원 4대 보험료, 퇴직금 적립



1000년 활동



10) 도시민 유치 지원

: 호수둔여중, 농협임직원, 유성주민자치위원회, 태권도선수단, 인하대학교동아리, 칠갑산얼음분수축제 방문 손님 마을 펜션 연계 외 1,000여명 도시민 유치 (각종 체험행사-김치담그기, 구기자따기, 밤수확 등 연결 지원)

11) 기업/기관 유치, 홍보활동

: (주)코앤링크, (주)삼성아이마켓코리아, (주)투일, 강남구청, 산악동호회 등 유치/ 교류협약추진

칠갑마을
Chilgap Village

1000년 활동

1) 각종 홍보 전시회 기획 및 참가

- (1) 2015 내나라 여행박람회(2월) : **문화체육관광과 공동참여** / 관광자원홍보
- (2) 여름휴가페스티벌 : 체험마을협의회 참가지원, 이벤트 기획/ 운영
- (3) 고향마실페스티벌 : 2박3일로 확대(2015년) - 청양군홍보관 기획/ 운영
- (4) 고추구기자 축제 : 체험마을협의회 참가지원
- (5) 로컬푸드대축제 : 청양군내 로컬푸드 관련 단체/기업/농가/마을의 공동참여 기획
- (6) 백제 문화제 : 청양군홍보관 기획(10일간) 운영 - **관광정책계 공동추진**
- (7) 자전거 마일리지 사업 기획 및 홍보: **환경보호과 공동 추진**
→ 농촌체험과 관계가 있는 농업지원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와의 네트워크 형성

2) 체험마을 통합브랜드 홍보/ 공동체의식 함양 (블로그, 웹사이트, 통합메일링 운영)

: 통합웹사이트를 통한 "칠갑마을" 브랜드 홍보 및 내부적 공동체 운영의식 함양
기존 개인 이메일 사용에서 마을별 이메일 사용(마을명@majoong.co.kr)



칠갑마을
Chilgap Village

제7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청양)

청양군 마을만들기의 지원 시스템

- 도농교류센터(체험휴양마을협의회)의 향후 방향 -

2016. 9. 23(금)

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 본 내용은 지역과 논의중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인용하실 때는 사전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관점1. '주민 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 의 외부 지원 시스템 구축



→ '인구 급감, 초고령화'의 마을 상황.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마을 발전

→ 부족한 마을의 역량을 보완하며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외부의 지원 시스템 구축이
매우 절실한 상황

사회적경제 6차산업

귀농귀촌 로컬푸드

지역자활 청년창업 평생학습

지역복지 자원봉사 주민자치회

마을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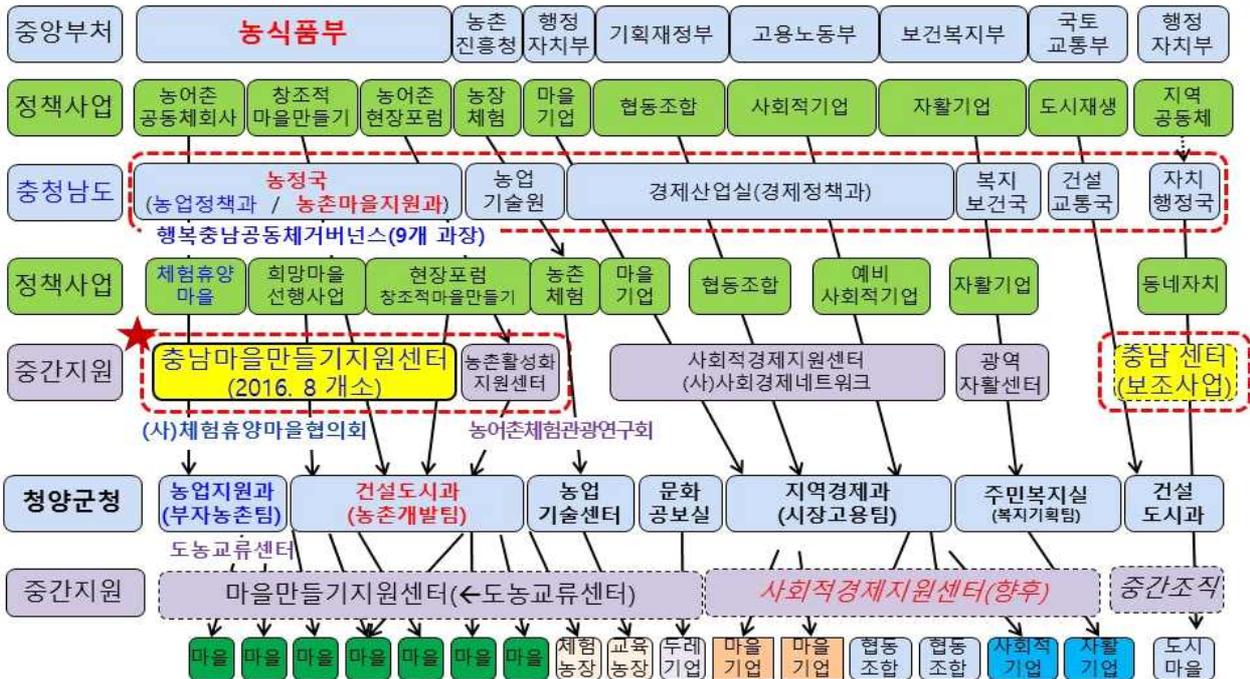
1읍, 9면

면적 : 480km²
인구 : 32,749명

183리
(행정리)

관점2. 마을만들기 행정 사업의 전달 경로 정비 : 시·군마다 다양한 방식

→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사업과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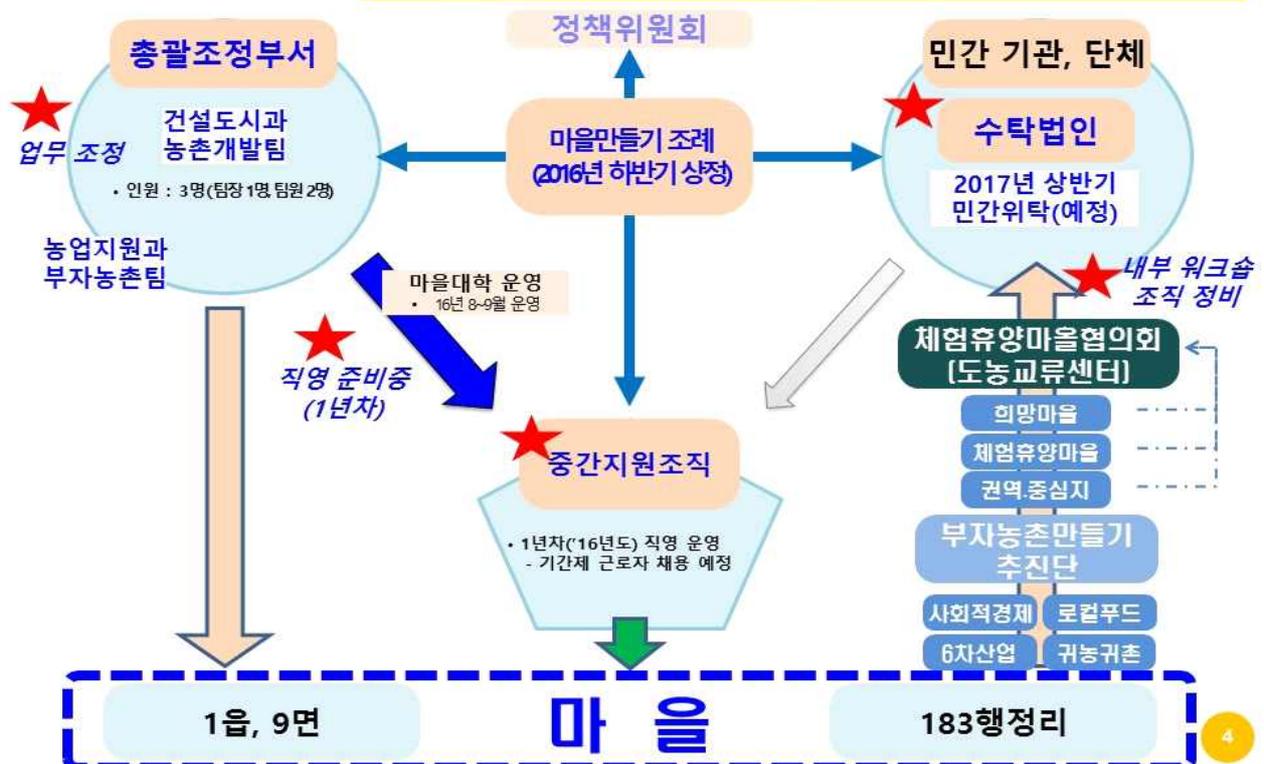


→ 광역은 전문화하여 혁신플랫폼(가칭)에 집중, 시·군은 통합형 지원센터 설립 지원

3

관점3 : 행정과 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역량 강화

→ 민간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풀뿌리 마을에 대한 체계적 지원



4

청양군 행정조직과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 _ 2016.5 기준



청양군 체험휴양마을협의회

- 설립일 : 2014년 02월
- 설립목적 : 농촌체험마을 통합운영으로 농촌마을과 도시 방문자의 연계통로(HUB)역할, 홍보 및 마케팅 통합관리, 마을단위 도농교류 상품화 전략적 추진, 리더양성 및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 청양군 농촌관광 포털사이트 운영
- 회원현황 : 청양군 14개 체험휴양마을 대표

마을명	대표자	주소	조성년도	지정년도	지정사업내용	기타
철갑산산꽃마을	장광석	대지면 까지내로 1063-1	2006년	2010년	숙박, 체험, 음식	
은골구자마을	이우준	비봉면 은골길 124	2005년	2010년	숙박, 체험, 음식	
가파마을	임광빈	대지면 가파로 506-8	2003년	2010년	숙박, 체험, 음식	
꽃피마을	이춘복	장광면 상미길 39	2006년	2010년	숙박, 체험, 음식	
사자산마을	명노환	운곡면 배미길 29	2009년	2010년	숙박, 체험, 음식	
장곡마을	김삼덕	대지면 장곡길 103-7	2006년	2010년	숙박, 체험, 음식	
알프스마을	황준환	정산면 전장호길 223-35	2006년	2010년	숙박, 체험, 음식	
용골꾸는마을	서명모	남양면 돌보길 72	2006년	2010년	숙박, 체험, 음식	
바둑골마을	이수열	정산면 면암로 288-184	2009년	2011년	숙박, 체험, 음식	
까지내마을	황인석	장광면 지전로 1241-8	2007년	2011년	숙박, 체험, 음식	
고인돌마을	명형철	운곡면 고인돌길 37	2008년	2011년	숙박, 체험, 음식	
철갑사니마을	최무락	대지면 철갑산로 668-19	2013년	2012년	체험	
백곡마을	윤상기	정산면 백곡길 154	2008년	2013년	숙박, 체험, 음식	
물억울마을	임동희	화성면 산당로 441	2007년	2014년	숙박, 체험, 음식	

청양군 도농교류센터 운영 현황과 쟁점

2014.2 설립, 14개 마을 참여

○ 사무실운영

- 사무실 임대료 : 보증금 10,000천원, 월200천원
- 운영비 출자 : 마을당 1,000천원 / 14개 마을
- 운영회비 : **마을당 월 100천원** / 14개 마을

○ 청양군 행정 지원사업

- 도농교류센터 운영 지원 **37,400천원**
 - 사무국장 인건비 18,000천원(1,500천원 X 1명 X 12개월)
 - 농촌체험 해설사 인건비 14,400천원(1,200천원 X 1명 X 12개월)
 - 일반운영비 5,000천원(5,000천원 X 1식)
 - 기타 농촌관광 관련 사업비 별도 지원
- ※ 농촌관광 이외 영역은 개별 마을별로 각자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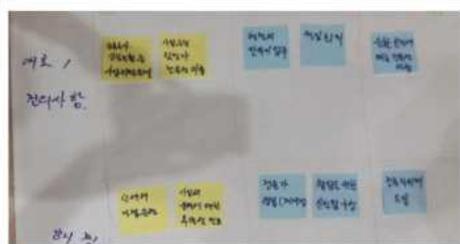
→ 도농교류센터 인건비 지원 : 2016년으로 종료 예정

[쟁점]

- (1) 도농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조례 제정과 민간 법인 설립을 통해 안정된 운영 기반 확보가 필요함
- (2) 농촌관광, 도농교류 사업과 **'살기 좋은 마을'**의 관계는 무엇인가?
→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더 높은 목표로 세우고 공익성을 설득해야 함
- (3) 도농교류센터(체험휴양마을협의회)의 **향후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 청양군 마을만들기의 대표 민간 조직 +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7

제1회 청양군 마을대학 1,2회차(4강) 진행



8

[제안1] 체험휴양마을협의회(도농교류센터) 조직의 확대 정비

→ 청양군 마을만들기의 대표 민간 조직으로 확대 발전

(1) 기본 방향 : 지역사회 대표성과 공익성의 확보(외부)

- 청양군 마을만들기의 대표 조직으로 확장 개편 : 체험휴양마을+희망마을 등
- 체험휴양마을협의회(도농교류센터) 운영 경험의 확대 - 선배 마을로서의 책임
- 관련 중간지원조직 사업의 수탁법인을 설립하는 책임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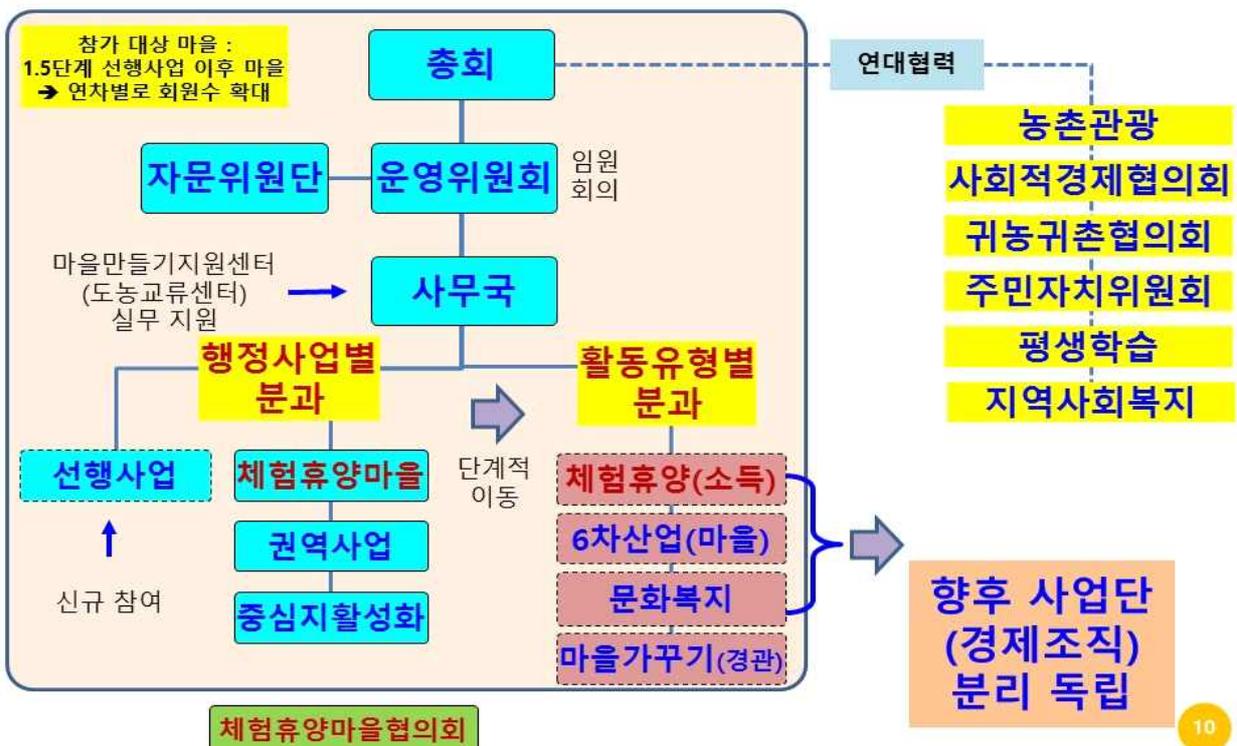
(2) 권한과 책임 : 책임과 권한의 조화(내부)

- 책임 : 마을 활동의 성실한 수행, 적극적인 회의 참여, 협의회 공동활동 분담
- 권한 : 공공성 활동에 대한 행정 지원
 - 회원 마을에 대한 사전, 사후 지원 사업 집중
 - 마을공동체, 농촌관광, 6차산업, 마을기업 등 행정 사업의 민간 협의 창구
 - 농식품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진입단계)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
 - 상근 간사의 배치 권한
 - 협의회 공동사업 지원 : 역량강화(해외연수 등), 농특산물 판매 등

(3) 조직 명칭과 분과 : 청양군마을만들기위원장협의회(가칭) → 비영리민간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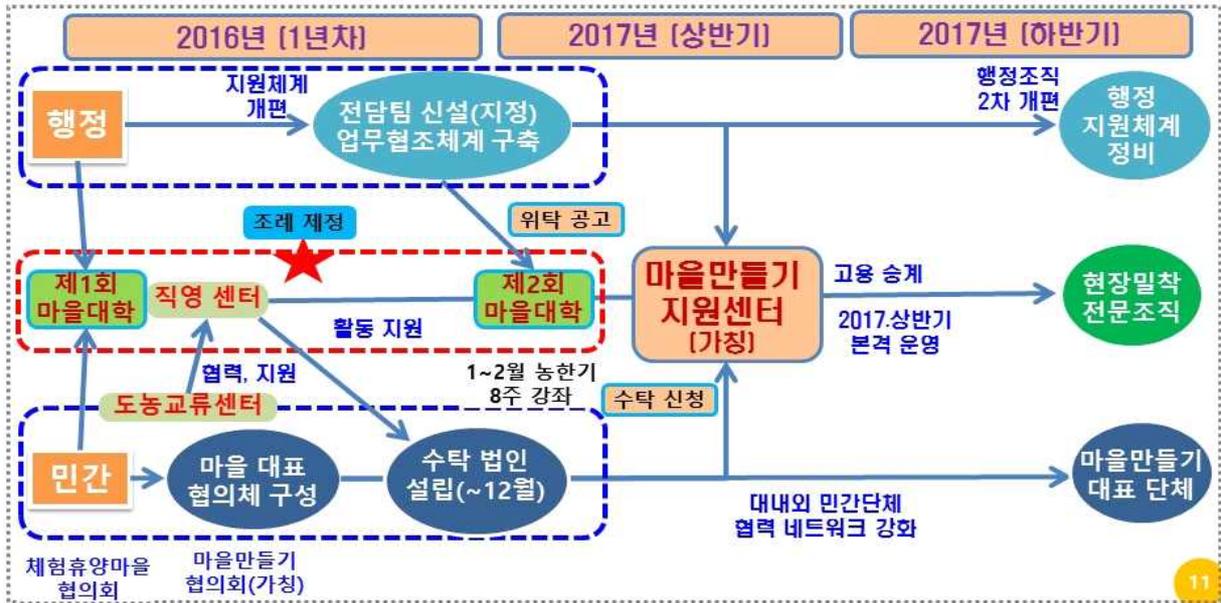
- 체험휴양마을분과 : 선배 마을 = 대외적으로는 (사)충남..협의회의 청양군지부
- 권역사업분과 + 중심지활성화사업분과
- 희망마을분과 : 현장포럼, 선행사업 등 신규 진입 마을의 참여 통로

[예시] 마을 대표협의회(법인) 조직으로 확대 개편



[제안2] 중간지원조직 및 수탁법인 설립의 기본 경로

- 지역사회 공감대 확보 → 도농교류센터(체험휴양마을협의회) 확대 개편
- 행정 : 직영 센터 조기 운영 → 2017년 상반기 민간 위탁(상근자 고용 승계)
- 민간 : 마을 대표 협의회 구축(12월말) → 수탁 법인 설립(최대한 빨리)



농촌 활성화방안으로서 농촌관광의 실행과 그 현재적 양태

- 전북 임실군 치즈마을의 경우 -

권 봉 관

(협) 지역문화연구공동체 모정

목 차

1. 농촌관광의 등장과 그 목적
2.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등장한 ‘마을’의 정체
3. 농촌관광의 도입과 마을사회의 변화
4.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농민의 대응
5. 외부세계의 위협으로 드러난 농촌관광의 허상
6. 결론 : 농촌관광은 농가재생산 구조를 이식할 수 있는가?

1. 농촌관광의 등장과 그 목적

1990년대 말부터 전국의 농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국가 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은 농촌관광의 도입과 실행을 통한 농가소득의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¹⁾ 1차산업 종사자로서 농민을 3차산업, 즉 농촌관광이라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농가경제의 재생산구조를 이식하는 것이 마을만들기 사업의 목적이며, 이는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농민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급격한 충격에 다름 아니었다.²⁾

2015년 9월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체험마을 관리시스템’(<http://www.rucos.kr>)에 등록된 마을만들기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약 2,037개 마을 및 권역에서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 각 부처별로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890개소),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454개소),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30개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146개소)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에서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115개소), 산림청에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107개소)과 숲가꾸기사업(14개소), 행정자치부에서 아름마을 조성사업(12개소)과 정보화마을 조성사업(124개소)을 시행하고 있다.

이상의 사업은 마을에 따라 중복 시행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며, 이를 고려해도 결코 적지 않은 수의 마을과 권역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도나 시군 단위의

1) 본 내용은 ‘권봉관, 『국가 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에 따른 농촌의 변화와 농민의 대응 : 전북 임실군 치즈마을의 경우』,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의 결론부분을 재구성한 것이다.

2) 마을만들기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이후 가장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마을 단위를 대상으로 한 국가 주도 사업이다. 그런데 새마을운동과 마을만들기 사업 사이에는 일정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바로 농가경제의 재생산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그것이다. 새마을운동이 농업을 통해 농가재생산구조를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면, 마을만들기 사업은 농업을 통한 농가재생산이 아닌, 농업 외 소득의 창출을 통한 새로운 농가재생산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고 바로 그 핵심이 농촌관광이다.

지방정부에서도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 주요하게 다룰 치즈마을이 속해 있는 전라북도만 해도 126개 마을과 권역에서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스템에 누락된 마을이 확인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수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사업의 중요성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수백 편의 연구 성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머물렀을 뿐, 실제 농촌의 변화와 농민의 대응방식을 실증적으로 풀어낸 성과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평가받는 농촌의 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전개에 따른 농촌의 변화와 농민의 대응 방식을 민속지적으로 밝히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신자유주의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등장하였다. 정부는 기존의 농업정책 대신 농촌 전체를 대상으로 한 농촌정책을 추진하였고, 그로 인해 농촌과 농민의 삶 전체가 개발대상으로 떠올랐다. 이에 극명하게 반응한 것이 농촌관광이었다. 문제는 농업정책에서 농촌정책이라는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농촌과 농민의 입장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농촌관광이 농민에게 의미하는 것은 지금껏 자연물을 대상으로 노동력을 투하하여 농가경제의 재생산을 지속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외부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농가경제의 재생산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과연 농민이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 종사자로의 이행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를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하고, 또한 농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농촌 마을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했지만, 시급히 시행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이와 같은 물음은 철저히 배제되고 말았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서 다음의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첫째, 국가 주도 아래 전국적으로 시행된 마을만들기 사업 과정에서 등장한 마을의 성격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둘째, 마을만들기 사업의 전개와 함께 도입된 농촌관광이 마을사회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셋째, 마을만들기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은 마을사회의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각기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이상의 문제제기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실행으로 인한 농촌의 변화양상을 추적하고, 농민의 대응방식에 관한 총체적 분석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2.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등장한 ‘마을’의 정체

1) 성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표본으로서 치즈마을

치즈마을은 현재 한국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한 곳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경제적인 부문으로만 따지면 2012년 당시 연인원 7만 명 이상의 유료체험객이 치즈마을을 찾아 각종 체험에 참가하였으며, 그 결과 연매출 17억 원을 기록했다.

치즈마을에서 처음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3년이다. 당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만든 마을 브랜드는 ‘임실 느티마을’이었다. 느티나무가 많은 금성리의 특징을 담아 브랜드를 정한 것으로, 이후 2005년부터 치즈만들기체험이 활성화되자 ‘임실느티치즈마을’로 임시 개명했다가, 이후 2007년도에 총회의 논의를 거쳐 ‘임실치즈마을’로 자리 잡았다.³⁾ 또한 2003년 농협에서 주관한 팜스테이마을로 지정되어 ‘느티팜스테이마을’이란 이름도 얻었으며,

3) 국가 주도로 실행된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만들기’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일개 단체가 아닌, 일정한 공간적 범주 안에 존재하는 마을 또는 마을연합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의 유치를 원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제시한 최소한의 요건, 즉 마을의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 마을 내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를 결성하고 그 단체의 이름에 ‘○○마을’이란 이름을 갖다 붙인다. 따라서 마을만들기 사업의 결과 ‘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은 수많은 단체들이 생겨나 사업을 실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단체가 곧 기존의 마을을 지칭하거나 대표하는 것은 아니며, 대개의 경우 해당 사업을 실행하는 데만 대표권을 획득할 뿐이다. 많은 경우 마을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은 지방행정의 최말단에 위치한 이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동회이다. 결국 마을만들기 사업의 결과 등장한

치즈마을로 개명 이후에는 ‘치즈팜스테이마을’로 불리기도 한다. 2007년부터는 행자부에서 주도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치즈정보화마을’이란 새로운 브랜드를 얻기도 했다.⁴⁾ 이처럼 다양한 브랜드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지고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치즈마을’이다.

치즈마을은 전국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가장 활성화된 곳으로 손꼽힌다. 전라북도 준산간지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은 편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 주변의 자연환경이 그리 빼어나지도 않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5만 명 이상의 체험객이 치즈체험에 참가하기 위해 마을을 방문하고 있다. 또한 성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표본으로서 정부의 각 행정기관은 사례조사를 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갖 시작한 마을은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꼭 방문해야 하는 유명 마을로 자리 잡았다.

2) 마을만들기 사업의 실행과 ‘마을’의 탄생

마을만들기 사업의 실행 과정에서 등장한 ‘치즈마을’은 기존의 마을공동체가 아니라, 임실군 금성리에 속한 세 자연마을을 기반으로 결성된 특수한 성격의 결사체였다. 금성리 일대에는 이미 1980년대부터 농촌에 남은 젊은 농민들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벌이고 있었다. 이들은 유기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도농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여 농민이 잘사는 농촌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원인에 의해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다. 농민들은 실패를 거듭하는 과정 속에서도 또 다른 시도를 계속했고, 마을만들기 사업 역시 실패의 과정 속에서 등장한 것이었다. 젊은 농민들은 국가의 지원을 바탕으로 농촌관광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물을 갖추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노티마을’이나 ‘치즈마을’과 같은 ‘마을’이라는 단어가 붙은 단체명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을’이라는 명칭은 농촌관광을 실행하는 단체를 홍보하기 위한 브랜드에 지나지 않았으며, 기존의 마을공동체는 사업과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다.

국가는 전국의 농촌을 대상으로 농촌관광의 성공적 시행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마을공동체를 적극적으로 동원하였다. 마을에는 국가가 기획한 사업을 이끌어갈 사람이 있었고, 농촌관광을 실행하는 데 주요한 기능을 담당할 유무형의 자원은 마을의 전통을 전승하고 있는 농민들의 것이었다.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마을에서 전승해온 각종 자원의 동원이 필수적이었고, 국가가 마을공동체를 호명하는 과정은 이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새로운 ‘마을’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보면 ‘마을만들기’라는 용어와 개념 그 자체는 이상의 현상을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3) 새로운 ‘마을’ 혹은 농촌관광을 실행하기 위한 작목반

국가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실행할 주체로서 전국의 마을을 호명했고, 이에 응답하여 모습을 드러낸 것은 ‘○○마을’이라 이름 붙은 단체들이었다. 사정에 따라 마을만들기 사업을 이끌어가는 조직이 실제 마을공동체와 동일시되는 곳도 있지만, 그렇다할지라도 농촌관광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과 그 구성은 기존의 마을공동체와 다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마을이 국가가 제시한 경제 사업, 즉 농촌관광이라는 서비스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하고 이끌어 나갈 새로운 조직을 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이를 두고 특수한 성격의 ‘작목반’이 결성되었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작목반은 마을 내, 혹은 마을과 마을을 연합하여 경제 사업을 이끌어가는 조직이지만, 그 자체가 마을공동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결국 국가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응답하여 모습을 드러낸 특정 단체들은 ‘○○마을’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여 마치 전국의 마을이 사업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었다.

⁴⁾ ‘○○마을’은 기존의 마을과 공간적인 범위에서만 부분적으로 일치할 뿐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으며 치즈마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4) 이렇듯 치즈마을에는 정부 각 부처별로 진행한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중복 실행되었고, 그 결과 각 사업에 따른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3. 농촌관광의 도입과 마을사회의 변화

1) 농촌관광의 실행과 농민 부업의 활성화

치즈마을은 농촌관광의 활성화로 인해 농민생활과 마을사회에서 결코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단순히 농촌관광의 도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농촌사회의 거시적인 변화와 일정하게 연동된 것이었다.

먼저 생업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치즈마을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금성리 일대에는 한국 농촌의 일반적인 변화 흐름에 따라 농업기계화와 신기술의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금성리 농민들은 각종 농기계를 보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벼농사를 짓고 있는 한편, 적지 않은 주민들이 고령화와 수익성 악화, 이주 등을 이유로 점차 벼농사를 그만 두고 있었다. 농업기계화의 진전은 농민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여유시간을 갖게 하였고, 그 결과 치즈마을에서는 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치즈마을에서는 치즈체험을 대표로 삼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고, 농민들은 농업에서 확보한 여유시간을 체험사업에 투자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젊은 농민들은 각종 체험사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고령의 농민들은 치즈체험장과 마을식당의 도우미, 경운기체험 운행자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자본이 필요 없는 임노동에 참가하며 사업을 보조했다. 특히 고령의 농민들은 농업기계화 등 여러 원인으로 벼농사에서 확보한 여유시간을 별 다른 자본의 동원 없이 체험사업으로 투하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체험사업에 참가하여 올린 소득은 거의 순수익에 다름 아니었다. 또한 고령의 농민들은 농업과 체험사업 참가를 병행하였고, 그 결과 이전에 비해 소득이 향상되었다.

<표-1> 2012년도 치즈체험장 주민소득 지급내역

강사	합계	이정준	김정미	최민정	강유란	김미현	조성현	이진하	최유라	양일섭	양삼섭
지급액	42,152	3,280	10,445	8,615	4,895	7,587	2,975	1,785	2,150	280	140
도우미	합계	이성순	강덕미	박복남	엄숙정	심보현	임영숙	한두남	한선자	조영애	
지급액	43,693	6,546	5,492	6,965	4,660	6,315	1,710	6,814	5,066	125	

☆ 단위 : 1,000원

☆ 100,000원 이하의 수입을 올린 사람은 기록에서 생략함

<표-2> 2012년도 치즈마을식당 주민소득 지급내역

구분	합계	윤옥숙	한선자	신나라	강남순	조정순	한두남	한덕순	조원순	태순희
지급액	41,508	665	1,400	6,777	100	3,395	1,785	4,005	3,150	20,231

☆ 단위 : 1,000원

☆ 100,000원 미만의 수입을 올린 사람은 기록에서 생략함

<표-3> 2012년도 경운기체험 운행자들의 주민소득 지급내역

운행자	오현덕	이태호	이호근	임계선	조종찬	이성호	김정수	조진홍	김춘섭	이기화
지급액	6,875	7,375	7,320	6,550	5,405	6,255	2,975	6,810	6,960	120
운행자	이철영	오선룡	조성현	이진하						
지급액	105	560	160	65						총계 : 57,535 평균 : 4,109

☆ 단위 : 1,000원

2) 소규모 농산물생산의 자극과 가공업의 등장

소농들의 소규모 농산물생산과 가공업도 새롭게 등장하였다. 농민들은 마을을 방문하는 체험객들을 대상으로 소량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농민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편 치즈마을 생업의 변화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목장형 유가공업’의 등장이었다. 치즈마을이 속한 임실군에서는 이미 1967년부터 치즈생산이 시작되었고, 이에 영향을 받은 농민들이 낙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치즈체험의 성공으로 수많은 체험객이 치즈마을을 방문하자 목장형 유가공업 역시 활성화되었다. 현재 치즈마을에는 모두 5곳의 목장형 유가공방에서 각종 치즈와 요구르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치즈마을은 각 공방에서 생산한 유제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특히 목장형 유가공방은 젖소의 사육과 착유, 유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농민이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그 결과 기존에 1차산업에 종사하던 농민이 2.3차산업까지 포괄적으로 진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농민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4> 연도별 체험객 수와 농산물 및 유제품 판매량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체험객	29,765	32,076	36,939	57,270	55,454	70,235	56,502	36,157
농산물	37,046	39,409	29,215
유제품	36,243	121,360	236,100	429,869	505,092	457,531	417,646	414,514
계	26,243	121,360	236,100	429,869	505,092	494,577	457,045	443,729

☆ 농산물과 유제품 판매 단위 : 1,000원

<표-5> 2013년도 공방별 생산량

목장명		이플목장	임실농부목장	두마리목장	푸른목장	숲골목장	계
공방명		(영)이플	(영)휴먼푸드	(영)무지개	밸리에	플라워팜	
총두수	젖소	52	17	11	110	120	310
	산양	.	20	34	.	.	54
착유두수	젖소	21	14	6	60	71	172
	산양	.	.	15	.	.	15
생산량(젖소)	L/1일	450	400	180	1700	2400	5230
생산량(산양)	L/1일	.	.	35	.	.	35
납유매출	백만원/1년	.	.	.	547	876	1432
가공사용량	L/1일	450	400	335	200	.	1485
가공매출 (추정치)	백만원/1년	700	700	600	365	.	2365

체험사업의 활성화로 인한 생업의 변화는 농민의 일과와 노동주기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체험사업에 참가하는 고령의 농민들은 기존의 농업을 유지하는 가운데 체험사업에 참가하였다. 기계적인 방식으로 거의 매일 진행되는 체험사업의 주기는 기존 노동주기와 중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노동시간의 압박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농업을 그만두거나 농사를 축소하는 반면 체험사업에는 그대로 참여하는 농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3) 농민 가족구조의 변화

다음으로, 체험사업의 활성화는 인구의 유입과 2세대 가구의 증가, 세대 간 권력의 수평화 및 여성 지위의 향상 등을 이끌어냈다. 체험사업이 활성화된 치즈마을에는 귀농인과 귀향인이 점차 증가하였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20~30대 토박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뒤 마을로 내려와 생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마을로 돌아오면서 기존의 1세대 가구가 2세대 가구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만 거주하는 1세대 가구의 증가율이 점차 하락하고 그 대신 2세대 가구 비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가족 내 권력 관계는 점차 수평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목장형 유가공업은 기존의 농업과 달리 외부로부터 전달되는 지식을 재빨리 습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러한 사정으로 자식들이 부모 세대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빨리 습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기존의 경종농업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농업기계화의 진전은 외부로부터 전달되는 지식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경종농업에 종사하는 젊은이들도 부모 세대의 지식보다 외부로부터 전달된 지식을 좀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마을 사회의 변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여성의 지위가 이전에 비해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젊은 여성들은 대부분 주업이나 부업 등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체험사업을 비롯한 치즈마을의 각종 사업을 이끌어가는 데는 여성들의 역할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젊은 여성들은 기존의 동회에서 확인되는 부녀회 등의 수동적인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의 임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가족경영형태가 확립된 목장형 유가공업에서 유제품의 생산을 도맡아 관리하는 사람은 여성들이었으며, 남성들은 주로 유통과 판매에 주력하고 있었다.

치즈마을운영위원회와 각 자연마을의 동회는 서로 상보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인해 등장한 각종 '마을'은 마을공동체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며 치즈마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등장한 각종 '마을'은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마을과 주민들에 관련된 여러 일은 여전히 동회의 대표인 이장을 중심으로 처리되고 있

다. 농촌체험이라는 경제 사업을 주도하는 치즈마을의 등장으로 기존의 동회가 치즈마을에 종속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치즈마을과 동회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로 고유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치즈마을운영위원회와 각 마을의 동회는 서로 긴밀한 관계 바탕으로 행정기관과 관련된 여러 일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가능한 한 더 많은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4.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농민의 대응

1) 마을공동체 자산으로서 체험사업

치즈마을 구성원들은 치즈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을 동원하고 있었다. 먼저, 치즈마을 구성원들은 수익의 창출과 분배를 위해 강력한 도덕적 규범을 기반으로 한 ‘공생의 경제’라는 경제 원리의 구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체험사업에 참가하는 농민들은 ‘염치의 경제’라는 방식으로 이에 조응하고 있었다. 공생의 경제나 염치의 경제는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 원리와 그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는 농민들의 독자적인 문화체계에 기반을 둔 경제 원리가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사례로서 주목할 만하다.

치즈마을이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기능을 했던 치즈체험은 원래 개인에 의해 개발된 것이 마을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양도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치즈체험은 개인이 사사로이 운영할 수 없는 공동자산의 성격을 갖추게 되었다. 그 결과 치즈체험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은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할 수 없으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했다.

현재까지 치즈마을에서는 사업의 실행 결과 발생한 수익금을 회원에게 일절 분배하지 않는 대신, 치즈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세 마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치즈마을발전기금(이하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사업의 실행 결과 1억2천4백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남길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직원들의 성과금지급과 법인세, 2013년도 사업준비금 등으로 남겨두고, 1천4백만 원은 노인복지지원금(4백만 원), 아동복지지원금(5백만 원), 지역사회지원금(5백만 원) 등으로 일시에 사용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인재장학금(2천만 원), 중장기마을발전기금(5백만 원), 노인복지사업준비금(2천만 원), 마을지적립금(5백만 원) 등으로 처분하였다.

2) 결사체에 의한 공생의 경제체제 구축

이 과정에서 구축된 것이 ‘공생의 경제’이다. 치즈마을에서는 치즈체험을 개인이 사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치즈와 농산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판매장 사업도 치즈마을운영위원회에서 독점하였다. 공생의 경제는 공동자산에 대한 사적 소유를 제한하는 대신, 개인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치즈마을에서는 ‘치즈마을발전기금’과 ‘마을세금’이란 장치를 마련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체험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그들의 활동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도록 매출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마을세금’이란 이름으로 부과했다.

3) 농민들이 이끌어가는 염치의 경제

치즈마을에서는 체험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독점하는 대신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수익의 분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이때 치즈마을이 선택한 것은 개인분배 없는 지원의

원칙이었고, 이는 일자리의 분배에 다름 아니었다. 치즈마을에서는 회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수익의 분배를 같음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공생의 경제’를 기반으로 한 수익의 분배에 ‘염치의 경제’라는 방식으로 조응하고 있었다.

염치의 경제는 오래 전부터 주민들에게 공유되어온 경제 원리로, 호혜성의 등가적 혹은 비등가적인 순환적 교환을 의미한다. 주민들은 치즈마을에서 마련한 일자리에 참가하여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치즈마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라는 비등가적 반대급부의 순환적 교환을 지속하여 치즈마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했다. 염치의 경제는 호혜성의 등가성 여부를 문제 삼지 않는 대신 호혜성의 지속적 순환을 통한 관계맺음의 지속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받은 도우미는 등가성 여부를 떠나 관계의 지속을 위한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치즈마을의 각종 행사에 꾸준히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실제로 치즈마을의 경제 사업에 참가하여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치즈마을의 각종 행사에도 꾸준히 참여하는 편이었다. 염치의 경제에 조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만 벌고 치즈마을 일은 등한시 한다”는 도덕적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4) 사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

①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익의 분배

분배의 문제는 치즈마을 사업에 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치즈마을 구성원들은 다양한 문화적 담론을 동원하여 그들 사업의 정당성을 보장받으려 노력했다. 사업이익금을 처리하는 과정에는 전통적인 효 사상을 동원하여 노인복지지원금과 노인복지사업준비금 등을 적립하였고, 이를 통해 치즈마을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교육담론도 중요하게 인식되어 아동복지지원금과 인재장학기금 등이 조성되었으며, 이러한 담론의 동원은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치즈마을 구성원 모두를 위한 수익의 분배를 이끌어내고 있었다. 치즈마을 구성원들은 금성리 세 자연마을뿐만 아니라 외부를 대상으로 한 정당성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즉 치즈마을의 수익 사업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금성리 일대에 한정된 것이 아닌 농촌 전체를 위한 사업이며,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이 바로 지역사회지원금이였다. 지역사회지원금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근의 마을로 지원되었으며, 치즈마을에서는 기금의 지원 이후 사용목적과 방식 등에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

② ‘마을’과 마을의 통합을 위한 문화적 움직임

다음으로, 치즈마을 사람들은 치즈와 관련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한편 농민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동원하였으며, 축제 역시 그 가운데 하나였다. 치즈마을에서 열리는 축제는 작은음악회, 대보름굿, 술맥이 등이 있으며 각각의 축제는 서로 다른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작은음악회는 치즈마을의 탄생과 함께 만들어진 축제로서, 치즈를 기반으로 삼아 농촌체험을 진행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잘 드러낸다. 그들은 축제를 통해 치즈마을 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강화하며 치즈마을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고 있었다. 대보름굿은 각 자연마을에서 전승이 중단되었던 것을 치즈마을 구성원들이 다시금 시작한 축제이다. 전통적인 대보름굿이 각 자연마을에서 따로 열렸던 것과 달리, 새로 구성된 대보름굿은 세 자연마을이 함께 전승하고 있다. 대보름굿에서는 한 해 동안 무탈하게 잘 지낸 것을 신에게 감사하는 한편, 내년 농사의 풍년과 체험객의 지속적인 방문을 기원한다. 술맥이는 각 자연마을별로 따로 열리는 전통적인 축제이다. 술맥이는 치즈마을과 연관성이 거의 없으며,

주민들이 각 자연마을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높이고 그 동안 소원했던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단합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두 축제와 구별된다.

③ 치즈를 기반으로 한 마을의 정체성 재구축

한편, 치즈마을에서는 임실치즈와 치즈마을의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 임실치즈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치즈마을 사람들은 지정환 신부를 초대하여 명예주민으로 위촉하고, 그의 이야기가 표현된 조형물을 설치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치즈마을 내에 지정환의 생가를 복원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치즈마을 구성원들은 농민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자연치즈에서 찾기도 한다. 지정환 신부가 임실에서 처음 만들었던 치즈는 자연치즈였다. 그런데 그가 설립한 치즈농협에서는 가공치즈를 생산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재료로 수입치즈를 사용하고 있다. 치즈마을 사람들은 치즈농협의 이러한 행태를 비판한다. 지정환 신부가 한국에서 처음 치즈를 만들었던 이유는 빈약한 자본을 가진 농민의 생존을 위해서였으며, 그런 만큼 임실에서는 가공치즈가 아닌 자연치즈를 생산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드러내고 있었다. 치즈를 만들었던 그의 생각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었다. 치즈마을에 위치한 각 목장형 유가공방에서는 자연치즈만을 생산하고 있으며, 직접 생산한 원유를 가공하여 천연치즈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정환 신부의 뜻을 이어받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는 역사의 재구성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한편, 건강한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민이라는 담론을 자연치즈에 투영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5. 외부세계의 위협으로 드러난 농촌관광의 허상

1) 마을 내부의 위협

(1) 경제적 성향과 조건의 불일치

치즈마을 구성원들의 바람과 달리, 치즈마을의 체험사업이 항상 성공일변도를 달리는 것만은 아니었다. 치즈마을 내부에서는 새롭게 구축된 경제적 조건에 기존 농민들의 성향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외부에서는 치즈체험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국가적 비상사태로 인해 시장이 침체되는가 하면, 지방정부의 체험시장 진출로 인해 체험객이 급감하는 등 각종 어려움이 배가됐다. 한편 국가는 끊임없이 마을을 통제하며 그들이 진행하는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농민들은 이와 같은 다양한 방식에 대응하고 있었지만, 외부로부터 초래된 위기는 좀체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① 농민에게서 나타난 한정 재화의 이미지

강한 도덕적 규범으로 재구성된 치즈마을이라는 공간은 고령의 농민뿐만 아니라 이를 공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결코 익숙한 조건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조건 속에서 주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치즈마을의 각종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고령의 농민들은 체험사업의 활성화로 인해 생겨난 각종 일 자리에 참가하면서 일치된 인지적 지향(cognitive orientation)을 보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참가하고 있는 부업을 독점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며 다른 사람들의 참가를 제한하려 했었고, 향후 예상되는 이익의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현실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있었다.

② 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한 마을세금의 양가성

치즈마을에 구성된 공생의 경제 원리는 자본주의의 논리가 일방적으로 통용되지 않으며, 치즈마을 사람들이 대안적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마련한 여러 가지 규칙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치즈체험과 판매장 운영을 공동체의 직영사업으로 간주하여 다른 이들이 일체 이 사업에 뛰어들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과 각 개별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마을세금’ 제도가 이를 잘 나타낸다. 치즈마을은 회원과 주민들의 노력에 의해 현재의 인지도와 유명세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치즈마을 결사체를 위해 환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만약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도덕적 책임과 비난이 가해졌다.

(2) 한 ‘마을’이면서 서로 다른 두 마을

치즈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세 자연마을 사이에 사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각 마을의 주민들은 치즈마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마을에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때마다 치즈마을에서는 각 마을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관망하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갈등은 마을 사이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로서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었다. 이는 치즈마을 사업의 성공으로 인해 금성리 세 자연마을이 경제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아직까지 문화적 공동체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치즈마을에 강한 소속감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한다면 향후 금성리 세 자연마을이 경제적 공동체뿐만 아니라 문화적 공동체의 성격까지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마을 외부의 위협과 대응 불가적 상황의 도래

(1) 시장에서의 경쟁 과열과 수익성의 악화

시장에서 경쟁의 과열과 국가적 비상사태에 의한 시장의 침체는 치즈마을의 빈약한 자본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시장에서의 공급의 과잉과 경쟁의 심화로 인한 위기였다. 치즈마을에서 처음 시작한 치즈체험은 그리 어려운 기술을 요구하는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곧 전국의 체험장에서 치즈체험을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고 말았다. 특히 치즈체험을 하는 많은 업체에서 ‘임실치즈마을’이라는 치즈마을의 고유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었다. 치즈마을에서는 임실치즈마을이란 브랜드의 차별성을 구축하기 위해 지리적표시제와 같은 법적인 보호를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치즈체험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따른 시장의 침체에 극명하게 반응하였다. 구제역으로 시작하여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거치는 동안, 치즈마을 구성원들은 체험사업이라는 것이 시장의 상황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몸소 깨달을 수 있었다. 국가적 위기상황에 따른 시장의 침체는 자본이 빈약한 한 단체의 힘으로는 쉽게 대응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지방정부의 체험시장 진출은 치즈마을의 체험사업에 가장 큰 타격을 가져왔다. 임실군에서 재단을 만들어 2012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자본력을 앞세우는 동시에 그간 치즈마을이 확보해놓은 유명세를 등에 업고 빠르게 체험시장을 잠식했다. 체험객들은 치즈마을과 치즈테마파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더욱 쾌적한 시설과 이국적인 경관을 자랑하는 치즈테마파크를 선호했다. 치즈마을이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등에 업고 있는 치즈테마파크와 경쟁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다.

<표-33> 치즈마을과 치즈테마파크의 연도별 체험객 수 및 매출액 비교

구분	2012		2013		2014	
	체험객 수	총매출	체험객 수	총매출	체험객 수	총매출
치즈마을	70,235	1,702,848,223	56,502	1,424,802,889	36,157	1,068,039,686
치즈테마파크	49,957	990,616,100	58,757	1,076,740,000	57,842	1,470,823,700
합계	120,192	2,693,464,323	115,259	2,501,542,889	93,999	2,538,863,386

(2) 결정적 실수 : 낭만적 태도와 사업의 규모화

사태가 점점 악화되는 가운데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은 새로운 사업의 시작이었다. 치즈마을에서는 ‘전북형6차산업화사업단’을 이끌어갈 ㈜임실치즈레인보우의 설립에 앞장섰다. 그런데 치즈테마파크를 만들어 치즈마을을 위기에 봉착하게 만든 임실군은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며 치즈마을을 더 깊은 위기에 빠뜨렸다. 임실군은 치즈마을로 들어오는 임실역 입구에 치즈판매장을 만드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다. 치즈레인보우의 대표 조성현과 사무국장 양삼섭은 만일 사업이 강행된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저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지만, 향후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다.

3) 농민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 : ‘일상적 저항’의 변주들

마을만들기 사업을 실행한 당사자인 국가는 끊임없이 마을을 통제하고 동원하려고 시도하며, 치즈마을에서는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했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나 지방정부는 각 마을의 사업 실적에 따라 전국의 마을을 서열화하며 각종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마을 서열화는 잘못된 통계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서, 농민들은 국가의 전략을 잘 알고 있으며, 마을 서열화에서 좋은 등급을 차지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조작하고 있었다. 자료를 조작하는 농민의 비도덕성을 비난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농민들의 행동은 애초부터 농촌관광이라는 무리한 정책을 펼친 국가에 대응할 수 있는 농민의 일상적 저항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다.⁵⁾

국가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실행한 뒤 국가의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마을을 동원하려고 한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심심찮게 열리고 있는 도농교류 직거래장터 등이 바로 그것이다. 치즈마을 역시 국가의 동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국가의 동원에 대응하기 위해 위장된 순응이라는 전략을 활용한다. 치즈마을에서는 장터를 비롯해 국가가 동원한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실리를 따져보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급적 참가하지 않는다.

5) 스콧은 이와 관련하여 집단적이고 혁명적이며, 일정한 규율이 존재하고, 기존의 지배체제를 부정할 이념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진정한 저항이라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가 관찰한 제3세계의 농민은 반드시 지배체제를 향한 저항을 통해 전복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농민의 저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상의 유지 혹은 생존의 지속이기 때문이다. 농민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체계적이고, 비조직적이며, 기회주의적이고, 지배체제에 협조하거나 또는 비협조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한다. 이른바 지체(foot dragging), 위장된 행위(dissimulation), 도망가기(desertion), 거짓 복종(false compliance), 절도(pilfering), 가장된 무지(feigned ignorance), 헐뜯기(slander), 방화(arson), 파괴(sabotage) 등은 농민을 비롯한 약자들이 반란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저항의 방법들이다(James C. Scott, *Weapons of the Weak: Everyday Forms of Peasant Resistance*, Yale University, 1985).

6. 결론 : 농촌관광은 농가재생산 구조를 이식할 수 있는가?

마을만들기 사업의 전개와 농촌관광의 실행이라는 외부의 급격한 충격으로 인한 농촌의 변화와 농민의 대응 방식을 살펴본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농촌의 지속가능성 탐색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평가받는 치즈마을의 사례에서,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위치에 서 있는 농민들이 제각각 농촌관광의 도입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대 한국 농촌사회의 농민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농민들은 제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 마을사회의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통합적 흐름을 찾아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는 농민의 대응 방식에는 일정하게나마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연령대에 따른 대응방식의 차이이다. 농촌관광의 실행에 따라 다양한 체험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치즈마을에서, 아마도 전통적인 농민의 범주에 속할 수도 있는 60대 이상의 농민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대응방식을 보이고 있었다.

60대 이상의 농민들은 기존 마을공동체와 치즈마을이라는 결사체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마을공동체에서 부과하는 의무에는 거의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것과 달리, 치즈마을에서 요청하는 의무에는 실익을 추구하며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마을공동체를 의식하면서 '염치의 경제'라는 원리를 몸에 체득하고 있었으며, 체험사업에 참가하면서 가능한 한 더 많은 노동에 참가하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를 희망하는 등 개인의 현실적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치즈마을 사업 초기에는 관망의 자세를 취하다가 치즈마을이 활성화된 이후 회원으로 가입하며 사업의 성공유무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60대 미만 농민 가운데 마을에 남아 유기농법과 도농직거래 등의 방식으로 농업의 활로를 찾으려 했던 젊은 농민들과 이들의 자식세대는 60대 이상의 농민들과 일정하게 구별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은 마을공동체를 의식하는 것보다 그들과 지향점이 일치하는 치즈마을 결사체를 더욱 중요한 공동체로 여기고 있었다. 또한 의식적 지향의 공유를 바탕으로 '공생의 경제'를 구축하여 대안적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결사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개인의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여기도 했다.

이상과 같은 연령대별 성향의 차이점은 근대의 파고를 힘겹게 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정책적인 영향으로 '닫힌 마을'에서 '열린 마을'의 형태로 반강제인 전환의 과정에 놓인 농촌의 모습뿐만 아니라, 비교적 전통적인 농민들과 또 다른 성향을 가진 농민의 병존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농민이 보이는 성향의 차이는 자본주의라는 거시적 흐름의 변화에 따라 농촌이 일정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농민들 역시 거시적인 변화의 흐름에 따라 성향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거시적인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여 대안적 공동체의 건설을 지향하는 젊은 농민들이, 농촌 외부의 질서와 일정하게 구별되는 농촌 내부의 고유한 질서를 구축해나가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하겠다.

=====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 이 글은 '권봉관, 「국가 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에 따른 농촌의 변화와 농민의 대응」,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의 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입니다. 저자의 동의 없는 인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